

다. 특히 개종 성도들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요원으로 몰아 중형을 선고하는 등 신앙을 이유로 한 박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본권조차 보장받기 힘든 위기 속에서도 현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월 20일 금요일 / 북한 (1위)

현재 북한은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자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가혹한 처벌을 가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이나 찬송 같은 기독교 자료를 접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삼엄한 통제 속에서도 외부 세상을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박해받는 성도들과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땅의 억압이 사라지고, 그곳의 모든 영혼이 진정한 자유와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3월 21일 토요일 / 아라이즈 아프리카 (Arise Africa)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한 '100만 명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가 '특별 우려 국가'로 재지정된 이후 교회 공격과 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한국오픈도어는 2만 명의 참여를 목표로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현지 성도들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혜가 모이고, 닫힌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리는 공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청원하기]

3월 22일 주일 / 리비아 (9위)

인구 700만 명 중 그리스도인이 3만 5천 명뿐인 리비아의 교회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샤리아법(이슬람법)이 엄격한 리비아에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거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척박한 땅에서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리비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더욱 힘 있게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월 23일 월요일 / 말리 (15위)

말리 성도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심각한 폭력과 강제 이주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삶의 모든 위협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성도들과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오픈도어 현지 협력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고난받는 말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월 24일 화요일 / 몰디브 (19위)

몰디브는 모국어로 완역된 성경이 없어 현지 성도들이 큰 영적 갈급함 속에 있습니다.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언어로 속히 번역되어 안전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성경 번역의 모든 과정에 주님의 지혜가 임하여 몰디브의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월 25일 수요일 / 수단 (4위)

수단은 현재 내전과 인도주의적 위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장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인한 박해까지 더해져 더욱 절박한 상황입니다. 구호물자가 기독교인에게도 공정하게 배분되고, 수단 땅에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3월 26일 목요일 / 모리타니 (21위)

현재 모리타니에서는 급진 이슬람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을 '배교자'로 낙인찍어 대중의 적대적인 시위를 선동하고 있으며, 무슬림의 기독교 개종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신앙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센 압박과 법적 규제 속에서도 현지 교회는 작지만 강인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의 성도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령이 폐지되어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월 27일 금요일 / 시리아 (6위)

지난 1월 18일, 시리아 정부와 쿠르드계 무장 조직(SDF)이 전격적으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알레포 지역의 교전으로 기독교인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이 정든 터전을 떠나야 했으나, 이번 협정에는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번 합의가 시리아 북동부의 긴장 상태를 끝내고, 삶의 자리를 잃은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월 28일 토요일 / 튀르키예 (41위)

튀르키예는 강한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무슬림이 되는 것을 국민적 정체성으로 여기며, 기독교를 부정적인 서구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기독교 개종이 불법은 아니지만, 개종자들은 가족으로부터 관계 단절의 위협을 받고 망명자나 구직자들은 사회적 차별과 법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독교에 관한 튀르키예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바뀌어 개종자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월 29일 주일 / 소말리아 (2위)

소말리아는 기독교인으로 살기에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로, 이슬람 극단

주의 단체인 알샤바브는 기독교인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잔혹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 성도들은 깊은 트라우마와 생명의 위협 속에 있으며, 발각되지 않기 위해 홀로 숨어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고립된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심각한 박해와 고통 속에 있는 소말리아의 비밀 신자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월 30일 월요일 / 인도 (12위)

인도의 카베리(Kaveri)는 여성 기도 모임을 운영하고 의류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힌두교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마을을 떠나야 했고, 아들이 구금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와 지원으로 오픈도어 박해대비 훈련을 받고 새로운 의류 가게와 재봉 센터를 열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카베리는 가게를 찾는 손님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중단되었던 기도 모임이 다시 시작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카베리의 마을에 다시 기도 모임의 문을 열어주셔서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월 31일 화요일 / 코모로 (43위)

코모로 제도에서는 수니파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도 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으며, 기독교를 전파하는 현지 기독교인들은 기소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지정된 세 곳의 교회에서만 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코모로의 법과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누구나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월력의 기도제목들은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에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요청하기에서 월간『오픈도어』OpenDoors 신청 또는 한국오픈도어로 전화하시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65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25(방배동), 2층 202호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등록번호-종량, 라00042 부록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286

2026년 03월
VOL.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 시편 46:1 -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OpenDoors
세계를 위한 선교를 위한 오픈도어

3월 1일 주일 / 나이지리아 (7위)

2025년 성탄절 이후 나이지리아 북부 곳곳에서 무장 세력의 연쇄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마을과 시장이 습격당해 6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식량 창고와 상점이 약탈당하거나 방화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생명의 위협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과 터전을 잃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슬픔과 두려움에 빠진 그들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월 2일 월요일 / 카자흐스탄 (45위)

지난 15년간 수도탑을 세워 마을에 물을 공급하고, 2011년부터는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를 섬겨온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근 모스크와 일부 주민들의 요구로 정부가 건물 몰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우리의 신앙과 헌신을 알고 있는 만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의롭게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3월 3일 화요일 / 중국 (17위)

지난 2025년 12월, 천 명이 넘는 무장 인력이 교회를 급습하여 200여 명의 성도를 연행했으며, 현재까지도 지도자 20여 명이 부당하게 구금된 채 가족들과 함께 극심한 압박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어 2026년 1월에는 당국이 중장비를 동원해 교회 건물을 전면 봉쇄하며 철거 위협까지 가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굳건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월 4일 수요일 / 미얀마 (14위)

미얀마 군부가 통치 정당화를 위해 강제 총선을 강행하면서, 성도들이 투표 협박과 보복 위험 사이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제 징집과 이동 제한, 불안한 치안으로 인해 예배마저 어려운 상황인 미얀마의 성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이 땅에 속히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정부가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3월 5일 목요일 / 베네수엘라 (69위)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국민이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교회의 예배와 사역 또한 제한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군사 작전 중 기독교인이 희생되는 비극도 발생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과 불안 속에 있는 베네수엘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고통받는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월 6일 금요일 / 어라이즈 아프리카

미군이 나이지리아 북서부의 ISIS 거점을 공습하며 테러 단체 소탕에 나섰으나, 이에 따른 보복 공격 우려로 현지 성도들은 큰 공포와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잔인한 학살을 자행해 온 무장 단체들이 이번 공습을 빌미로 다시금 성도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민간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복의 위협에 노출된 북부 지역 성도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월 7일 토요일 / 멕시코 (30위)

알론소(Alonso)와 마테(Mateo) 선교사는 교회 건축 자재를 구하러 가던 중 무장 범죄 조직에 붙잡혀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들은 총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범죄 조직원들에게 회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조직원들은 그들을 ‘평화의 사람’이라 부르며 무사히 놓아주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통제와 위협 속에서도 멕시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3월 8일 주일 / 인도 (12위)

성탄절 기간, 인도 전역에서는 힌두교 극단주의 단체들에 의해 교회가 파괴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폭력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여러 주에서 성탄 장식물이 불태워지고, 목회자들이 강제 개종 혐의로 허위 고발당했으며, 심지어 시각장애인 여성과 어린이들까지 공공장소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인도 성도들이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종교의 자유와 정의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3월 9일 월요일 / 니카라과 (32위)

현재 니카라과 정권은 종교 통제를 강화하며 외국인의 성경과 종교 서적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급이 차단되면서 현지 교회들은 제자 훈련과 사역에 큰 차질을 빚으며 심각한 영적 기근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 5,000개가 넘는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강제 폐쇄되는 등 기독교를 향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땅에 다시금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성도들이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종교의 자유가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3월 10일 화요일 / 콜롬비아 (47위)

최근 콜롬비아 반군(ELN)의 무장 파업으로 전국에서 살상과 방화 등 테러가 발생하며 국가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군의 도로 봉쇄와 무장 검문으로 인해 많은 교회의 주일 예배와 성경 학교가 취소되었고, 성도들의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 교회들은 사역 중

단을 강요받는 위협 속에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콜롬비아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 폭력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3월 11일 수요일 / 이란 (10위)

이란에서는 26명의 그리스도인이 가정 교회 활동과 복음 전파를 이유로 감옥에 갇힌 채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조셉(Joseph) 목사와 나세르(Nasser) 성도 등 많은 이들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뇌졸중이나 척추 골절 등 심각한 병환 중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여기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란 성도들이 감옥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속히 석방되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월 12일 목요일 / 말레이시아 (51위)

정글 깊숙한 곳, 교육과 복음에서 소외되었던 원주민 공동체에 제자 훈련을 통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훈련 1년 만에, 눈도 맞추지 못하던 수줍은 성도들이 이제는 회중 앞에서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은 성도 중에서 새로운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정글 속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월 13일 금요일 / 라오스 (28위)

라오스 남부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집이 파괴되고 마을에서 강제로 추방되었습니다. 공동체 리더인 분찬(Bounchan) 목사는 밤새 기둥에 묶여 수감이 채워지는 고문을 당했으나,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세 가정 18명의 성도는 깊은 숲속으로 쫓겨나 임시 천막에서 생활하며 굶주림과 추위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를 고치신 주님을 어찌 잊겠느냐"라며 숲속에서도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오스 성도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속히 안전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월 14일 토요일 / 스리랑카 (65위)

스리랑카 북중부의 위자야(Wijaya) 목사님은 최근 예배당을 신축했다는 이유로 지역 승려와 주민들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배를 중단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시와 협박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도 40명의 성도는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위자야 목사님과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이 땅의 종교적 적대감이 사라져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3월 15일 주일 / 예멘 (3위)

현재 예멘은 세계 박해 지수 3위로, 올해 초부터 50명 이상의 성도가 체포 및 실종되는 등 유례없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비밀 장소에 갇혀 가혹한 심문과 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을 향한 살해 협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구금된 성도들이 해를 입지 않고 속히 석방되고, 예멘의 모든 마을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세워져, 이 땅이 속히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월 16일 월요일 / 카자흐스탄 (45위)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을 급습하고 성도들을 가두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은 뒤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고, 성도 10여 명을 강제로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부모의 동의도 없이 학교에서 목회자의 자녀를 심문하는 등 어린이들의 마음에도 큰 상처와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부당한 공권력의 압박이 멈추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참된 종교의 자유가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3월 17일 화요일 / 콩고민주공화국 (29위)

마리암(Mariam)은 2017년 이웃들이 무장 단체에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오픈도어 현지 협력자들을 통해 마리암을 포함한 3,000여 가구에 식량과 의복, 그리고 자립을 위한 소액의 창업 자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들은 노점상을 시작하며 생계를 꾸릴 희망을 찾았고, 멀리서 전해온 형제들의 사랑에 깊은 위로를 얻으며 감사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또한 콩고의 성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월 18일 수요일 / 에리트레아 (5위)

악명 높은 감옥에서 기독교인을 포함한 수감자 일부가 석방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지만, 20년 넘게 투옥 중인 7명의 교회 지도자는 이번 석방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석방된 이들 대부분은 열악한 수감 환경 탓에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오랜 이별로 인해 가족과 재회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전히 수많은 이를 재판 없이 가두며 종교적 압박을 멈추지 않는 에리트레아 정부를 위해, 그리고 석방된 성도들의 회복과 남겨진 지도자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3월 19일 목요일 / 이란 (10위)

현재 이란은 경제난과 인권 문제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는 혼란 속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